



‘타격감 폭발’ KIA 김도영, 팀 상승세 이끈다



롯데와 주중 1차전서 4타수 2안타 2타점 “도루 언제든 가능…수비도 자신 있어”

“이제 타이밍 늦을 일은 없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 드릴 것입니다.”

KIA타이거즈의 ‘슈퍼스타’ 김도영이 당찬 포부와 함께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했다.

김도영은 1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롯데자이언츠와의 주중 1차전 경기에서 3루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김도영의 활약에 힘입어 4-1 승리를 거둔 KIA는 이날 2연패 탈출과 동시에 리그 공동 7위 (18승 21패) 에 올랐다.

이날 김도영은 0-0으로 균형을 이뤘던 5회말 2사 1·2루서 타석에 올라 좌중간을 완전히 가르는 2타점 적시타를 터트리면서 승부의 균형을 바꿨다. 후속타자 최형우의 우중간 안타 때는 홈플레이트를 밟으며 득점을 올렸다.

그는 8회말에도 팬타를 휘두르며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팀이 3-1로 앞서 나가던 8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좌전 안타를 때려냈다. 이어 무사 만루 상황에서 변우혁의 병살타 당시 홈으로 질주하며 득점을 추가했다. 결국

KIA는 김도영의 활약으로 4-1 승리를 굳혔다.

김도영은 경기 후 “컨디션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자신감이 있었다. 직전 경기에서도 좋은 느낌을 받아서 쉬면서도 빨리 경기를 하고 싶다는 기대가 있었다”며 “이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 시즌 개막전 당시 부상으로 이탈한 뒤 4월 말에 복귀한 그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도영은 “통증은 없었지만, 적응이 필요했던 것 같다. 야구장에 나왔는데 몸도 너무 가벼웠다”면서 “뛰는 건 100% 가능하다. 감독님이 사인만 내주시면 뛰겠다. 직전 경기에서도 감독님께서 그린라이트를 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비도 지금 실책이 단 한 개도 없다. 기분이 좋다. 원래 스타트를 할 때 불편함을 좀 느꼈는데, 지금은 그것도 다 사라진 상태다”며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완전히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좀 더 과감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도영은 지난 시즌 141경기 544타수 189안타 38홈런 109타점 143득점 40도루 타율 0.347로 리그를 점령

했다. 최연소·최소경기 30홈런-30도루, 최소타석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등 다양한 대기록을 쏟아낸 그는 올 시즌 좀처럼 큰 타구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김도영은 “조바심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다. 팀 상황이 좋지 않았고, 저에게 기대하는 게 결과를 바꾸는 걸 텐데 그걸 하지 못해서 걱정스러웠다”면서도 “그렇지만 뜬공과 땅볼 비율도 타이밍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작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제 정확히 문제가 뭔지 찾았고, 준비를 잘했다. 이제 타이밍 늦을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KIA는 나성범과 위즈덤이 부상으로 이탈해 중심타선에 공백이 생겼다.

김도영은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올해 정상적으로 경기한 적이 없다. 이제 적응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너무 좋은 선배님이자 타자라 타격이 없을 순 없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플레이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 김도영은 “최근 투수들이 다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 누구나 150km의 공을 던지고, 좋은 변화구를 가지고 있어 상대하기 까다롭다”면서 “그걸 대처해야 좋은 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는 것 같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공에 빠르게 적응을 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U18 금호고, K리그 주니어 C권역 우승

U18 조기 우승 이어 U17 저학년 제패
최수용 감독 ‘축구명문 명성 이룰 것’

프로축구 광주FC U18 금호고등학교 선수단이 U18 리그와 U17 저학년 리그 동반 우승을 일궈냈다. 광주 U18 금호고는 최근 광주 금호고에서 열린 2025 K리그 주니어 U18 C권역 9라운드 경남FC U18과의 경기에서 1-1 무승부, U17 저학년 리그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U18 금호고는 지난 4월 26일 울산HD U18 현대고와의 원정 경기에서 5-1 대승과 함께 C권역 전반기 조기 우승을 확정 (6승 1무 1패) 지은 데 이어 U17 저학년까지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구단 최초 고-저학년 동반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저학년 리그는 1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2위 전북현대 U18 영생고를 제치고 5승 1무 1패로 우승을 기록해 그 의미를 더했다.

광주FC 관계자는 “이번 동반 우승은 구단 유소년 시스템의 저력을 입증한 결과”라며 “결출한 선수

들을 다수 배출한 유스 명문답게 앞으로도 K리그 유스 무대에서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수용 U18 금호고 감독은 “고교 축구 강호들이 즐비한 C권역에서 당당히 동반 우승을 거둔 선수들 및 코칭스태프에게 고맙다”며 “앞으로 대한축구협회장배에 이어 K리그 유스 챔피언십·전국 고교 왕중왕전 등 중요한 대회들이 많은 만큼, 더 좋은 성적을 거둬 ‘축구 명문 금호고’라는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조선평화협상 기념식에서 전갑수 시체육회장, 김춘성 조선대 총장, 운동부 감독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대학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시체육회, 대학팀 학교운동부 지원 박차

조선대 학교운동부에 1억7000만원 전달…경기력 향상 기대

광주시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 상위 입상과 대학 학교 운동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지원에 나섰다.

1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조선대학교 총장실에서 전갑수 시체육회장, 김춘성 조선대 총장, 운동부 감독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대학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지원되는 육성지원금은 전국체육대회 대표팀으로 확정된 대학팀 운동부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다. 시체육회는 조선대 등 총 8개 대학 22개 종목 300여명의 대학 선수들에게 총사업비 3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대표선수 인원을 기준으로 전국체전 성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선수들의 경기력 강화 및 상

위 입상을 위해 전지훈련·훈련용품 구입 등 훈련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 지역 대학팀 학교운동부는 지난해 경남 일원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2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메달 경쟁에서 큰 보탬이 됐다. 특히 31년 만에 결승에 진출한 조선대 축구팀은 준우승을, 광주여대 양궁팀은 대회 타이 기록과 2관왕을 차지하는 등 광주의 메달 사냥에 견인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어려운 지방대학 여건 속에서도 운동부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선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하고 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육성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체육회 ‘리더스포츠클럽 공모’ 전국 최다 선정

3개 클럽…총 3억원 예산 확보
아이스하키 등 훈련 체계 구축

전남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 리더스포츠클럽 공모에서 전국 최다 클럽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남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2025년 단체경기종목 리더스포츠클럽 집중훈련캠프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 리더클럽이 선정되는 성과와 함께 총 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최근 파리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단체경기종목의 부진한 성적을 반성하고, 유소년 및 아마추어 우수선수 발굴과 선진 훈련시

스템 도입을 통해 종목별 경기력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전국 각지의 지정·공공 스포츠클럽이 대거 신청한 가운데, 전남은 축구와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3개 클럽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로써 전남도체육회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리더클럽을 배출하게 됐다.

선정된 클럽은 목포스포츠클럽이 서울 마포 스포츠클럽과 축구 종목에 공동 참여한 것을 비롯해 순천스포츠클럽이 여수공공스포츠클럽·광양스포츠클럽·영암군세한스포츠클럽과 축구 종목에, 광양스포츠클럽이 단독으로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선정됐다.

이들 3개 클럽은 각각 리더클럽 역할을 맡아 클러스터형 집중훈련캠프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광양스포츠클럽은 전남 최초로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독 리더클럽으로 선정되며, 비인기종목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클럽에는 최대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전남 매니저·우수지도자·트레이너·분석관 등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

또 국내 집중훈련, 원포인트 레슨, 미니리그, 교류전 등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클럽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선수육성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목포스포츠클럽



광양스포츠클럽



순천스포츠클럽

세한대 유도부, 양구평화컵서 ‘금빛 메치기’

김민성, 100kg 이상급 1위…안상민, 동메달 획득

세한대학교 유도부가 ‘2025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에서 금빛 메치기를 선보였다.

세한대는 최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100kg급 김민성 (4년·사진)이 금메달을, -100kg급 안상민 (3년)이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세한대 유도부는 2024양구평화컵 (금 1·은 1·동 1)과 2025 춘계 전국남녀대학유도연맹전 (개인전 동 1·단체전 동 1)에 이어 메달 행진을 이어가며 전국 최상위권 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 +100kg급에 출전한 김민성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끊임없는 공격으로 결승전에서 장민석 (용인대)을 물리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동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김민성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체급 최강자의 위용을 뽐냈다.

-100kg급 안상민은 박상훈 (경기대)에게 패하



세한대 유도부 선수 김민성

며 동메달을 수확했다.

노박환 감독은 “이번 대회의 우수 성적을 통해 훈련의 방향성을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 다른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으로써 세한대학교 유도부의 저력을 확인시키고 동시에 더 큰 미래를 향해 도약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세한대학교 유도부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매우 고무적이다”며 “전남도체육회는 도내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